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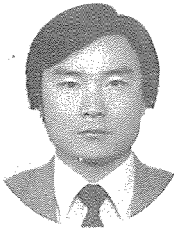
제46호 1987년 4월 20일

물리치료회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우리 직업에 보람을」

김영민



물리치료사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정도 될까하는 의문은 물리치료사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한 의문점 때문에 다른 직업은 어떠할까 라고 생각해 보게되고 직업상 천차만별 직업의 종사자들과 접하게 되는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직업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어떤 교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는 교사로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 크나큰 보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 등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누구나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인듯이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며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그사람이 무척 훌륭해 보였고 그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 매우 부럽게 느껴졌으며 그 직업보다 더 훌륭한

직업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보람있고 할만한 직업이라면 누구나 그 직업으로 전향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날 어떤 술집에서 열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 교사인것 같았다. 그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무척 학대하고 과소평가 하고 있었다. 즉 고된 잡무, 진급의 한계성, 낮은 보수, 학부모들의 횡포를 당해야 하는 신세 등 괴로운 점을 들면서 차라리 일찌감치 장삿길로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는 그사람이 그렇게 초라하고 측은해 보일 수가 없었고 것처럼 형편없는 직업은 없는것 같이 느껴졌다.

그로인해 얼마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직업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형편없이(여지없이) 실추되고 말았다. 이 사회에는 확실히 구분지을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비교적 좋은 직업으로 인정을 받으며 인기가 있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혹은 좋지 않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업이 있다.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일반적인 요인을 보면 높은 수입, 많은 권한, 크나큰 명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직무만족인 것 같다.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타인이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직업에 종사해 보지 못한 타인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자신의 평가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그 직업 종사자 스스로의 평가가 사회적인 평가에 상당히 많이 작용하게 된다. 특히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직업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색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보람을 가지며 자기의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좋게 느껴질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도 더러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리치료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흔한 직업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직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자신의 평가 및 직무만족에 크게 의존하며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발전되어 나간다. 다행히도 몇몇 조사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는 의뢰기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수입 측면에서는 물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무한히 있으며, 자신의 노력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적당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과의 조화, 환자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느끼는 보람, 계속 공부하는 자기개발의 기회, 전문적으로서의 불가침영역 교수, 이론과 실제의 적용기회 등은 의뢰기사 뿐만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살려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많은 직업인들에 비해서도 높은 직무만족을 보이게 된다.

어떠한 직업이던지 그 직업에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고 역기능적인 면이 있다. 순기능적인 면을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을 것이며 역기능적인 면을 크게 생각하여(떠올리며) 한탄하고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낸다면 그러한 불행한 일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좋게 만들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보람찬 업무의 수행과 자기 개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직업의 특수성에 의해 무한한 가능성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노력하고 전진하며 좀더 나은 방향으로의 모색에 합심한다면 우리의 직업은 확실히 보장받게 되고 그에따라 사회적인 평가도 자연히 나아지리라 생각된다.

〈서울 남부지부장〉

“Biofeedback in Rehabilitation”

ADDRESS REPRINT REQUESTS TO; J.V. Basmajian, MD
McMaster university Chedoke -McMaster Hospital Box 2000; station
A. Hamilton, ON Canada L8N3 Z5

김 광 수 역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 A Review of principles and practices
- John V. Basmajian, MD
- 재활의학과, McMaster 대학, Chedoke -McMaster 재활센터(Canada 의 Hamilton에 있는)

ABSTRACT (초록)

Basmajian JV: Biofeedback in rehabilitation: review of principles & practices. Arch phys Med Rehabil 62: 469-475 page, 1981 발행

현대의 biofeedback 은 환자와 치료사에게 확실한 생리적 결과를 즉시로 나타내게 하는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이고 그것은 환자에게 표시된 signal(보통 시각적인 and/or 의 음향)을 조직함으로 무의식적인 결과를 조절해 주는 것이다. 운동근육 motor단위의 좋은 조종에 대한 진단적 EMG와 biofeedback 은 임상적 EMG biofeedback에 귀착됐다. 재활에 있어서 그것은 upper motor neuron lesions의 치료에 확실한 위치를 알게한다. 특히 환자의 경련성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고 근육을 재훈련함에 있어서 확실한 위치를 알게한다. Cerebral palsy와 musculoskeletal disturbances, 덧붙여 feedback transducers(electrogoniometers, pressure-sensitive와 position-sensing devices)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경련성 torticollis는 특히 EMG feedback을 포함한 치료의 실천방법에 대해 특히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국어 순화주의자들이 “biofeed back”이란 단어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10년전에 조여된 이래로 확고하게 구축되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그것을 널리 그

리고 선동적력적인 개념으로 표현된다. 그것은 내적 생리적 결과를 즉시적이고 지속적인 전자(electronic) 표시로 주어져 있다(meters, banks of lights, various auditing devices를 이용하여). 인간은 자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결과를 조정하도록 배울수 있다. 그것이 지금 실용되어 지는데 biofeedback 은 분리과학보다는 과학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기본 개념은 medicine-행동의학(behavioral medicine)에 있어서 확실한 혁명의 시작을 자극하고 있다. Behavioral 의학은 behavioral 기술의 사용을 주장한다. 특히 자기통제(biofeedback을 함께함)에 있어서 단순한 비만(obesity)으로부터 심각한 심장혈관문제에 있어 순환적 긴장에 의한 두통에 이르기까지 순환장애의 무리의 치료에 대해서도 behavioral 기술의 사용을 주장한다. 의사들이 본 복합증상들의 반이상을 이것들이 설명한 이래로, 다음 수십년내에 behavioral 의학이 환자들을 다룸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견되어진다. 정도변화를 요하는 육체적 결함이 있는 환자들은 또한 그것이 성숙기가 될 때 behavioral 의학의 일반적인 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항목은 “myo-feedback”, “EMG feedback”, “neuromyometry”, “sensory intogration”, “audiovisual neuromuscular re-education,”과 나의 명명법에 대해 거부된 처음시도인 “artificial proprioception”과 같이 민감한 physiatrists에 의해 회피적으로 참조된 biofeedback에 대한 것이다. 지금 묘사된 그 단어는 그 기원이 꽤 오래됐고 잡다하다.

“biofeedback”은 Biofeedback 연구회, 캘리포니아의 산타모니카의 작은사회 formation과 함께 1969년에 처음 나타났다. 그때 연구그룹들(그들 대부분이 서로 겨우 알았으나 그들은 그들 연구의 공통 주제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생리학적 feedback 체